

# 심층분석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2026.04.14

### 1장. 산업 분석: 여신전문금융업의 구조와 역동성

#### 1-1. 여신전문금융업의 정의와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근거하여 영위되는 금융업종으로, 크게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네 가지 업종으로 구성됩니다. 은행이 예금·적금 등 수신(受信)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대출하는 구조라면, 여신전문금융사는 수신 기능 없이 오직 여신(與信)만을 취급합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산업 전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리스크 프로파일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변수입니다. 수신이 없다는 것은 고객 예금이라는 안정적인 저렴한 자금원이 없다는 뜻이며, 따라서 여전채(회사채) 발행, 은행 차입,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시장성 자금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곧 회사의 신용등급이 조달금리를 직접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A+ 등급을 보유한 현대캐피탈과 A+ 등급의 중소형 캐피탈사 간에는 동일한 금액을 빌리더라도 연 0.5~1.0%포인트 이상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며, 이 차이가 수익성 격차로 직결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내에서도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구분됩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업을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리빙빙 이자·부가서비스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캐피탈사는 리스·할부·대출·투자금융 등 여신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집니다. IBK캐피탈이 속한 "캐피탈사"는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를 지칭하며, 이 리포트에서 "캐피탈 산업"이라 할 때는 이 범주를 의미합니다.

#### 1-2. 시장 규모와 성장 추이: 양적 성장의 한계와 질적 전환

국내 캐피탈(비카드 여전사) 시장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된 비카드 여전사는 181개사이며, 합산 총자산은 약 236조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외형 성장과 달리 수익성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카드 여전사 합산 순이익은 2022년 약 3.3조원에서 2023년 약 2.7조원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9조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카드사를 포함한 전체 여전업권 순이익 역시 2024년 약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회복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2021~2022년의 호황기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수익성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으나, 대출 금리는 경쟁 심화로 그만큼 올리지 못해 NIM(순이자마진)이 축소됐습니다. 둘째,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3~2024년에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부실이 집중 발생했는데, 여전사 부동산PF 전체 익스포저 27.5조원 가운데 위험도 높은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 비중이 34%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셋째,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대출 부실과 가계 연체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업권 평균 NPL비율은 2.5%, 연체율 1.9%로 모두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자산건전성 악화가 업계 전반의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 1-3.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와 핵심 수익 지점

캐피탈사의 가치사슬은 "자금조달 → 여신 심사·실행 → 채권 관리(회수) → 투자(자본이득 추구)"의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에서의 핵심 수익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전산직이 어떤 시스템을 다루게 될지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여전채 발행, 은행 차입, CP(기업어음) 발행, ABS 발행 등의 방법이 활용됩니다. 캐피탈사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의 핵심 수익원은 이자마진(NIM)입니다. 조달금리(여전채 발행금리, 은행 차입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수익의 본질이며, 이 스프레드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용등급 관리(조달비용 절감)와 리스크 프라이싱(대출금리 적정화)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신 심사·실행 단계에서는 리스(시설대여), 할부금융, 기업대출, 부동산담보대출, 팩토링(매출채권 매입)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자산을 운용합니다. 채권 관리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이자·원금 회수와 함께 연체채권 관리, 추심, 대위변제, 부실채권 매각(NPL 매각) 등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융 단계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벤처투자), 메자닌투자(CB·BW·EB), PEF(사모펀드) 출자, GP펀드 운용 등을 통해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추구합니다.

최근 캐피탈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 물적금융(자동차 리스·할부)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금융·투자금융·부동산PF 등 비전통 영역으로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삼일PwC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캐피탈사의 경우 리스·할부와 같은 전통적 물적금융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기업대출·투자금융 등 비물적 여신의 비중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IBK캐피탈처럼 처음부터 기업금융·투자금융에 집중한 회사가 오히려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1-4. 2025~2026년 산업의 5대 핵심 트렌드

첫 번째 트렌드는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장기화입니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부동산PF 부실은 2024~2025년에도 업계 전반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부실 익스포저가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에 이른 곳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질서 있는 정리(orderly resolution)를 유도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정리 기간이 2027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면 IBK캐피탈은 부동산PF 익스포저가 2023년 영업자산의 26.7%(2조 6,735억원)에 달했으나,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부실 자산을 정리하여 2025년 3분기에는 요주의이하여신이 전년 대비 46.4%나 감소했습니다. 이 점이 IBK캐피탈의 실적 호조와 직결됩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레버리지 규제 강화입니다. 2025년부터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한도(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가 기존 9배에서 8배로, 배당을 30%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7배로 축소됐습니다. 이 규제는 캐피탈사의 자산 성장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합니다. 자기자본 1조원인 캐피탈사의 경우, 기존에는 9조원까지 자산을 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8조원(또는 7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 확충 없이는 자산 성장이 어려워졌고, 배당 여력이 있는 대형사 중심으로 자본 확충과 성장 전략의 재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BK캐피탈의 레버리지 배율은 5.96배로 법정 한도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경쟁사 대비 구조적 강점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규제 재균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탈 취급한도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카드사만 통신판매업이 가능했으나, 캐피탈사에도 이를 허용하면 렌탈·리스 상품의 판매 채널이 확대되어 수익 다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차별규제 해소'의 일환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IBK캐피탈은 B2B 특화 모델로 렌탈·통신 판매 사업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규제 변화의 직접적 수혜는 현대캐피탈·KB캐피탈·롯데캐피탈 등 B2C 비중이 높은 경쟁사에 돌아갈 가능성이 큼니다. 지원자는 이 점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AI·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입니다. 금융업 전반에서 AI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캐피탈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캐피탈은 AI 기반 대출심사 모델로 AAAI(미국인공지능학회) 학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KB캐피탈, 신한캐피탈 등도 AI 심사·마케팅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중소형사 역시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와 챗봇 등 비교적 도입 장벽이 낮은 기술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IBK캐피탈 역시 2026년 전략에 AX·DX 대응을 핵심 과제로 명시했으며, 디지털그룹장 출신의 문창환 대표가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이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전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망분리 규제 완화와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10년간 금융업의 IT 혁신을 가로막아 왔다는 평가를 받던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존 293개의 세부 행위규칙이 166개로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생성형AI, SaaS, 퍼블릭 클라우드 등 그간 금융권에서 사용이 제한됐던 기술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5년 금융IT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의 클라우드 전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우선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하이브리드·퍼블릭 영역으로 확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산직 지원자에게 이 트렌드는 곧 업무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온프레미스(자체 전산실) 중심의 폐쇄적 환경에서 일했다면, 향후에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컨테이너(Docker-Kubernetes), API 게이트웨이 등 새로운 기술 스택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요구될 것입니다.

### 1-5.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여신전문금융업은 은행·보험·증권과 구별되는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면접에서 "왜 은행이 아니라 캐피탈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구조적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수신 없이 여신만으로 승부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과 "기업금융·투자금융이라는 B2B 특화 영역에서의 전문성 축적 가능성"입니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 레버리지 규제 강화, AI 전환이라는 산업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단순히 "안정적 직장을 원한다"는 수준을 넘어선 깊이 있는 지원 동기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산직이라면 망분리 규제 완화와 클라우드 전환이 금융IT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2장. 경쟁사 비교 및 IBK캐피탈 포지셔닝

### 2-1. 10조 클럽의 7개사와 경쟁 지형

2024년 기준 총자산 10조원을 넘는 이른바 '10조 클럽' 캐피탈사는 7개사입니다. 현대캐피탈이 약 35조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KB캐피탈과 하나캐피탈이 각각 약 18조원 수준으로 2~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이 약 13조원, 신한캐피탈과 IBK캐피탈이 각각 약 12조원, 현대커머셜이 약 10조원, 산은캐피탈이 10.87조원 수준입니다. 규모로 보면 IBK캐피탈은 현대캐피탈의 약 3분의 1, KB캐피탈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중위권 캐피탈사입니다. 그러나 수익성과 건전성이라는 질적 지표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 2-2. 현대캐피탈: 자동차금융의 절대 강자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캡티브(전속) 금융사로, 국내 캐피탈 시장의 절대적 리더입니다. 총자산 약 35조원, 2024년 당기순이익 4,327억원으로 규모와 수익성 모두 업계 1위입니다. 현대·기아차 판매와 연동된 자동차 할부·리스가 영업자산의 약 82.5%를 차지하며, 이 캡티브 자산은 경기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현대캐피탈의 강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AA+ 신용등급에 기반한 업계 최저 수준의 조달비용. 둘째, 현대·기아차라는 거대한 판매 네트워크를 통한 안정적 자산 파이프라인. 셋째, AI 대출심사 모델 등 업계 선도적 디지털 역량입니다. 약점으로는 자동차금융 집중에 따른 포트폴리오 편중, 글로벌 자동차 시장 변동에 대한 높은 민감도, 현대차그룹 의존도가 지적됩니다. 2025년 1분기에는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판매 호조에 힘입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2-3. KB캐피탈: 수익성·성장성 1위의 균형 잡힌 플레이어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KB캐피탈은 KB금융그룹 소속으로, 2024년 기준 총자산 약 18조원, 당기순이익 2,220억원을 기록하며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 중 수익성·성장성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금융신문의 캐피탈사 리그테이블에서도 종합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자동차금융과 기업금융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혼합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KB금융그룹의 교차판매(Cross-selling)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합니다. 강점은 모그룹(KB금융)의 브랜드 파워와 고객 기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안정적 자금조달(AA+ 등급)입니다. 약점으로는 NPL비율 2.69%로 업계 평균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금융에서 현대캐피탈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 2-4. 하나캐피탈과 신한캐피탈: 그룹 시너지의 명암

하나캐피탈은 하나금융그룹 소속으로 총자산 약 18조원이지만,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하며 수익성 하락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PF 관련 총당금 적립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한캐피탈은 총자산 약 12조원으로 IBK캐피탈과 규모가 유사하지만, NPL비율이 4.51%로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자산건전성에서 뚜렷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금융지주 계열이라는 점에서 그룹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나, 부동산PF 부실 정리 부담이 실적을 압박하는 공통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아주캐피탈을 인수해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후 총자산 약 13조원으로 성장했으나,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시스템 일원화와 조직 안정화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 2-5. IBK캐피탈의 독보적 포지셔닝: B2B 순혈주의

IBK캐피탈의 포지셔닝은 위에서 설명한 경쟁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지원 전략의 핵심입니다. 현대캐피탈이 자동차금융(캡티브 자산 82.5%), KB·하나·우리 캐피탈이 자동차금융+기업금융의 혼합형 모델인 반면, IBK캐피탈은 기업금융·투자금융이 영업자산의 96.4%를 차지하는 순수 B2B 모델을 운영합니다. 자동차금융과 소비자금융을 사실상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계금융도 2024년 말 기준 466억원(전년 1,831억원에서 대폭 축소)으로 스태론만 소규모로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이 전략은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DNA를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정책금융기관이며, IBK캐피탈은 모은행이 은행법으로 인해 취급하지 못하는 영역, 즉 벤처투자, 메자닌, PEF, 리스, 팩토링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성태 IBK캐피탈 부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산업금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단순히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종합적 금융 솔루션(대출+투자+리스+팩토링)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 전략적 지향을 보여줍니다.

실적으로 이 전략의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24년 당기순이익 2,142억원은 KB캐피탈(2,220억원)에 이어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 중 2위이며, 2025년 2,456억원은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NPL비율입니다. IBK캐피탈의 NPL비율 0.57%는 신한캐피탈(4.51%)의 8분의 1, KB캐피탈(2.69%)의 5분의 1, 하나캐피탈(1.76%)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부동산PF 부실이 업계를 강타한 시기에 오히려 대손비용 환입(-14억원)을 달성한 것은, 은행계열 특유의 보수적 리스크 관리가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또한 2024년 ROA(총자산 이익률)는 2.16%로 산은캐피탈(2.17%)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총자산 규모에서는 현대캐피탈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자산 대비 수익 효율성에서는 업계 최정상급인 것입니다.

### 2-6. 최근 1~6개월 주요 이슈

2025년 3월 문창환 대표이사가 신임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문 대표는 IBK기업은행에서 36년간 근무한 베테랑으로, 특히 디지털그룹장을 역임한 디지털·IT 전문가라는 점이 전산직 지원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취임 후 즉각 외부 컨설팅을 통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으며, 업무 효율화와 전략 재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2025년 9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월에는 기존 4그룹 5본부 체제에서 조직 개편이 단행되어 직무별 역할 재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미래, 탄탄하고 단단하게"라는 2026년 경영 슬로건 아래 AX·DX 대응, 생산적금융 확대,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3대 전략 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자기자본 3조원, 순이익 3,000억원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고, 향후 5년간 생산적금융(중소기업·혁신기업 대상 금융) 4조원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배당 기초를 유지하며 이익잉여금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 2-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면접에서 "왜 현대캐피탈/KB캐피탈이 아니라 IBK캐피탈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핵심 답변 프레임은 "B2B 특화 모델의 차별성"입니다. 자동차 할부·리스라는 정형화된 B2C 금융이 아니라, 기업 여신·투자금융·팩토링이라는 다양하고 복잡한 B2B 금융 도메인을 다루기 때문에 전산적으로서의 성장 폭이 더 넓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61명이라는 소규모 조직에서 전산직이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대형사보다 넓어, 시스템의 전체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도 어필 포인트입니다. NPL비율 0.57%라는 업계 최저 건전성은 "리스크 관리에 진심인 조직"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며, 이것이 IT 시스템의 설계·운영 철학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더할 수 있습니다.

## 3장. IBK캐피탈 심층 분석

### 3-1. 38년의 역사: 한국기업개발금융에서 IBK캐피탈까지

IBK캐피탈의 뿌리는 1986년 설립된 한국기업개발금융(주)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과 할부금융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1999년 기업은행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기은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2007년 현재의 IBK캐피탈이라는 사명을 채택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지배구조는 중소기업은행(기획재정부 50.9% 출자)이 IBK기업은행을 지배하고, IBK기업은행이 IBK캐피탈에 100% 출자하는 3단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사실상 정부가 최종 지배주주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IBK캐피탈은 민간 캐피탈사와 달리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합니다. 본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L&B타워 5~21층에 위치하며, 이 빌딩의 상당 부분을 IBK캐피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약 261명으로, 총자산 12조원 규모의 금융사치고는 매우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B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는 IBK기업은행(모은행),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신용정보, IBK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전산직에게 특히 중요한 계열사는 IBK시스템입니다. IBK시스템은 IBK기업은행의 IT 전문 자회사로, IBK캐피탈의 IT 시스템 구축·운영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2012년 IBK시스템을 통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IBK캐피탈 IT 역사의 가장 큰 이정표였으며, 2018년에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졌습니다.

### 3-2. 사업 구조와 수익원 분석

IBK캐피탈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영업자산의 구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업자산의 96.4%가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3.6%가 가계금융(스탁론)과 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금융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 팩토링(매출채권 매입), 리스(산업기계·설비) 등을 포함합니다. 투자금융은 신기술사업금융(벤처투자), 메자닌투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PEF(사모펀드) 출자, GP 펀드(운용 주체로서의 펀드) 등을 포함합니다.

주요 상품 라인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금융에서는 기업대출(운전·시설), 팩토링, 비대면팩토링, 부동산담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보대출 등이 있고, 투자금융에서는 신기술투자(CB/BW/유상증자/조합출자), 메자닌투자, PEF/GP펀드 등이 있습니다. 할부금융과 리스금융도 취급하지만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가계금융은 스타론(주식담보대출)만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팩토링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며 디지털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및 수익 추이는 인상적입니다. 매출액은 2022년 5,241억원에서 2023년 6,803억원, 2024년 7,862억원으로 3년간 약 50%가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2년 1,282억원, 2023년 2,109억원, 2024년 2,856억원으로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944억원에서 2023년 1,558억원, 2024년 2,142억원, 2025년 2,456억원으로 4년 연속 증가하며 3년 연속 역대 최대를 갱신했습니다.

2025년 실적 호조의 핵심 동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자산 평가손익이 81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면서 IBK캐피탈이 보유한 벤처·메자닌 투자자산의 공정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둘째, 선제적 총당금 적립에 따라 대손비용이 마이너스(-14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즉, 기존에 보수적으로 쌓아둔 총당금이 환입된 것으로, 이는 2023~2024년에 부동산PF 등 잠재 부실에 대해 미리 총당금을 적립한 결과입니다.

### 3-3. 차별화 포인트 5가지

IBK캐피탈의 차별화 포인트를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IBK기업은행 그룹 시너지입니다. 모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고객 네트워크를 IBK캐피탈에 연계하여 기업금융 영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은행법상 취급이 어려운 금융 니즈를 캐피탈이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B2B 순수 특화 모델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경쟁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포트폴리오 구성이 시장 지위의 독보성을 만듭니다. 셋째, 업계 최고 수준의 건전성입니다. NPL비율 0.57%, 대손비용 환입이라는 지표는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것을 넘어, 여신 심사와 사후관리의 질적 수준이 업계 최상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넷째, 5대 신성장동력(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 기후테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이 분야에 7,866억원을 투자하며 미래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성장 여력입니다. 조정자기자본비율 17.73%(법정 7%의 2.5배), 레버리지 배율 5.96배(법정 9배)로 규제 여유분이 크며, 무배당 기초를 통한 자기자본 축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3-4. 리스크 요인 3가지와 대응 현황

모든 기업에는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를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건전한 태도입니다. IBK캐피탈의 리스크 요인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입니다. 기업금융·투자금융이 영업자산의 96.4%를 차지한다는 것은, 경기 하방 시 기업 대출과 투자자산이 동시에 부실화될 수 있는 상관관계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특히 벤처·메자닌 투자자산은 주식시장 변동에 민감하며, 2025년의 818억원 평가이익이 시장 반전 시에는 평가손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리스크를 인식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비부동산·GP펀드 확대를 위험 분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PF 잔여 리스크입니다. IBK캐피탈의 부동산PF 익스포저는 2023년 영업자산의 26.7%에 달했습니다. 선제적 정리로 요주의이하여신이 46.4% 감소하며 빠르게 해소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추가 악화될 경우 추가 총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보수적으로 총당금을 적립해 둔 상태이므로, 추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셋째, 해외사업 리스크입니다. IBK캐피탈은 미얀마에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2023년 2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실적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 비중이 전체 영업자산의 1% 미만이므로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3-5.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IBK캐피탈의 강점과 리스크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NPL 0.57%의 건전성은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 IT 시스템 관점에서 여신심사 시스템의 정교함, 연체 조기경보 시스템, 총당금 산출 모델의 보수성 등을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대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전산직으로서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시스템 구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므로, "성장하는 회사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싶다"는 지원 동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4장. 인재상·조직 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 4-1. IBK캐피탈 공식 인재상 4대 키워드

IBK캐피탈의 공식 인재상은 네 가지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고객의 행복"은 고객에게 행복을 드리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마인드를 넘어, 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니즈를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적 지향을 반영합니다. 전산직의 맥락에서 이 가치는 "시스템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그들의 업무 편의를 극대화하는 I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둘째, "신뢰와 책임"은 바른길을 가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금융업에서 신뢰는 존립의 근거이며, 특히 여신전문 금융사에서는 고객의 자금과 정보를 다루는 만큼 책임감이 더욱 강조됩니다. 전산직에게 이 가치는 시스템 보안, 데이터 무결성, 규제 준수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실현됩니다. 금융 데이터 유출이나 시스템 장애는 곧 고객 신뢰의 훼손이므로, "신뢰와 책임"은 전산직의 모든 업무 판단에서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셋째, "최강의 팀웍"은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261명의 소규모 조직에서 전산직은 영업, 심사, 리스크, 준법감시, 경영지원 등 거의 모든 부서와 일상적으로 협업합니다. 개인의 기술적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현업 부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강의 팀웍"은 전산직에게 기술력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넷째, "창조적 열정"은 창의적 사고와 탁월한 실행력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AX·DX 시대에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AI, 클라우드, 빅데이터)을 적용하여 업무 혁신을 주도하는 역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창환 대표가 디지털그룹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가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영 방침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4-2. IBK그룹 전체의 핵심가치와 인재유형

상위 그룹인 IBK기업은행은 세계인, 책임인, 창조인, 도전인, 전문인의 5대 인재유형을 제시합니다. 세계인은 글로벌 역량과 열린 사고, 책임인은 윤리의식과 사명감, 창조인은 혁신적 사고와 변화 주도, 도전인은 도전정신과 성과 지향, 전문인은 전문지식과 자기개발을 강조합니다. IBK캐피탈의 4대 인재상은 이 그룹 인재상과 맥을 같이 하되, 캐피탈사의 사업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운영되며, 직무 관련 역량과 조직 적합성을 균형 있게 평가합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 4-3. 2026년 채용공고에서 읽는 평가 기준

2026년 IBK캐피탈 신입사원 채용공고에서 면접 평가항목은 창의력, 논리력, 협상력, 친화력, 가치관, 인성, 입사 의지, 조직적합성의 8개 항목입니다. 이 8개 항목의 배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창의력"과 "논리력"이 앞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성실하고 순응적인 인재가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협상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다소 이례적인데, 전산직이라 하더라도 현업 부서나 외부 벤더와의 조율·협업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친화력"은 소규모 조직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치관"과 "인성"은 금융인으로서의 윤리적 기본기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채용예정인원의 약 64배수가 합격합니다. 이는 서류 합격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후 필기와 면접에서의 변별력이 매우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산분야의 자격요건은 IT 관련 전공자 또는 정보처리기사 보유자이며, 우대 자격증으로 SQLP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훈대상자에게는 5~15%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4-4. 금융IT 직무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

캐피탈사 현직자 인터뷰와 금융IT 직무 분석 자료를 종합하면, 이 도메인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역량과 사고방식이 존재합니다. 캐피탈사 현직자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입에게 기대하는 업무 능력은 크지 않다. 조직에 잘 적응하고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발언은 금융IT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금융IT는 순수 IT 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순수 IT 기업에서는 기술적 창의성과 개발 속도가 핵심 역량이라면, 금융IT에서는 안정성, 정확성, 규제 준수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고, 1원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금감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수십 개의 법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환경에서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고치는" 애자일 방식보다는 "꼼꼼하게 설계하고, 철저히 테스트하고, 신중하게 배포하는" 워터폴 방식이 여전히 주류입니다.

따라서 금융IT에서 높이 평가받는 소프트스킬은 기술력과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첫째, 규제 준수 마인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IT와 관련된 법규는 방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행정제재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발이나 운영의 모든 판단에서 "이것이 규정에 부합하는가"를 먼저 따져야 하며, 이 습관이 체화된 사람이 금융IT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둘째, 보안 의식입니다. 금융 데이터는 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므로 극도의 민감성을 가집니다. 망분리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 접근통제 원칙 준수, 데이터 암호화, 이상거래탐지(FDS) 등 보안 관련 업무가 전산직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보안을 "불편한 제약"이 아니라 "업무의 본질적 일부"로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안정성 지향적 업무 태도입니다. 시스템 변경은 반드시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발-테스트-스테이징-운영의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코드 한 줄의 변경이라도 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롤백 계획을 수립한 후에야 운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합합니다.

넷째, 다부서 소통 역량입니다. 전산직은 "IT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통역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업부서가 "이런 상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을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번역해야 하고, 리스크관리부서가 "이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할 때 데이터 추출 로직을 설계해야 합니다. 기술 언어와 비즈니스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역량이 금융IT에서는 개발 실력만큼 중요합니다.

다섯째, 문서화 능력입니다. 금융IT에서는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명세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정의서, 테스트결과서, 변경이력서, 장애보고서 등 문서 작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금감원 IT검사에서도 이 문서들이 핵심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코딩 시간보다 문서 작성 시간이 더 많은 날도 있으며, 이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프로젝트 관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캐피탈사의 IT 프로젝트는 대부분 외부 SI업체나 솔루션 벤더와 함께 수행됩니다. IBK시스템, 대형 SI업체, 금융 솔루션 전문기업 등 외부 인력과의 협업이 일상적이며, 이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산출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전산직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PM/PL) 기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갈등 조정 능력이 요구됩니다.

### 4-5. 조직문화: "소문나지 않은 신의직장"

직장인 커뮤니티와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IBK캐피탈은 "업계 불문 대기업 상위 1% 연봉, 워라밸, 비교적 낮은 근무강도, 정년보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 처우 수준을 보면, 평균 월급 약 555만원, 신입 초봉 약 5,474만원, 평균 연봉 약 8,654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 중에서도 상위에 해당하며, 중소형 캐피탈사나 일반 IT 기업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급여체계는 호봉제 기반에 경영실적 연동 성과급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호봉제의 안정성과 성과급의 동기부여 효과를 결합한 방식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의 실질적 수령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사제도와 복리후생을 보면, 사원급에 대해서는 순환근무 원칙을 적용하여 입사 초기에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는 전산직의 경우 계정계-정보계-채널계-대외계 등 다양한 시스템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전 임직원 건강검진, 학자금 지원(유치원~대학), 직원 대출(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사원아파트, 각종 경조금, 휴양소 이용 등이 제공됩니다. 직원 수 261명의 소규모 조직이라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지방 순환 없이 서울 강남 고정 근무라는 점도 다른 금융사와 차별화되는 특징입니다.

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연봉은 높지만 이직률도 낮아서 채용 기회 자체가 드물다"는 코멘트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조직 안정성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 4-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인재상의 4대 가치를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각 가치를 전산직의 구체적 업무 상황에 연결하여 자신만의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복"은 "시스템 장애 없는 안정적 운영으로 영업부서가 고객에게 끊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로, "신뢰와 책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시스템을 설계·운영하겠다"로, "최강의 팀웍"은 "현업 부서의 비즈니스 언어를 이해하고 IT 솔루션으로 번역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로, "창조적 열정"은 "AI·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혁신에 기여하겠다"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연결이 면접에서의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소프트스킬이 기술력보다 중요하다"는 금융IT의 특성을 이해하고, 팀 프로젝트 경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경험, 문서 작성 역량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나다"보다는 "팀원들과 소통하며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서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가 금융IT 면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장. 전산분야 직무 분석

#### 5-1. 캐피탈사 IT 전산의 핵심 역할 5가지

캐피탈사 전산직의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여신 핵심업무 시스템 개발·운영입니다. 이것이 전산직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대출 실행, 이자 계산, 상환 스케줄 관리, 연체 관리, 담보 관리, 신용평가(CSS·BRS), 팩토링 채권 관리, 리스 자산 관리 등 여신의 전 생애주기(Lifecycle)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운영합니다. IBK캐피탈의 경우 기업금융·투자금융이 주력이므로, 기업 여신심사 시스템, 벤처투자 관리 시스템, 메자닌 투자 평가 시스템 등이 핵심 업무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둘째, IT 인프라 관리입니다. 서버(Unix/Linux), 네트워크(LAN/WAN),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Oracle/Tibero), 미들웨어(WebLogic/JEUS), 백업·복구 시스템 등 IT 인프라의 설계·구축·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금융기관의 IT 인프라는 일반 기업보다 가용성과 보안 요구사항이 훨씬 높으며, 이중화(HA) 구성, 재해복구(DR) 체계, 성능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정보보안입니다. 물리적·논리적 망분리 운영, 접근통제 정책 관리, 데이터 암호화(DB암호화, 통신 구간 암호화), DLP(Data Loss Prevention),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보안 사고 대응이 이 영역에 포함됩니다. 금융보안원의 가이드라인과 금감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경영정보시스템(MIS)·데이터 관리입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고서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DW), ETL(Extract-Transform-Load) 프로세스, BI(Business Intelligence) 도구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감원 보고용 데이터(FISS 등)의 정확한 추출·제출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다섯째, 디지털 채널 개발입니다. 고객 대상 웹사이트, 모바일 앱, 비대면 서비스(비대면팩토링 등), 오픈뱅킹 연계 등 디지털 접점의 기획·개발·운영을 담당합니다. IBK캐피탈은 2018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 전략에서도 AX-DX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이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5-2. 금융IT 시스템의 4계층 구조

금융IT 시스템은 계정계, 정보계, 채널계, 대외계의 4개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전산직 신입은 이 4개 계층 중 하나에 배치되어 실무를 시작하게 되므로, 각 계층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계(Core Banking/Core System)는 금융 거래의 심장부입니다. 돈의 계정처리, 즉 대출 실행, 이자 계산, 원금 상환, 연체이자 부과, 담보 관리, 채권 회수 등 모든 금전적 거래가 계정계에서 처리됩니다. 1원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트랜잭션의 원자성(Atomicity), 일관성(Consistency), 격리성(Isolation), 지속성(Durability), 즉 ACID 속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정계는 금융IT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영역이며, 시스템 변경에 대한 통제가 가장 엄격합니다. 전통적으로 COBOL이나 C 기반의 레거시 시스템이 많았으나, 차세대 프로젝트를 통해 Java/Spring 기반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정보계(Information System)는 계정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계층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DW), ETL,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데이터 마트, BI 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금감원·한국은행 등에 제출하는 각종 규제보고서 데이터도 정보계에서 추출됩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플랫폼(Hadoop, Spark)과 AI/ML 모델이 정보계에 통합되는 추세입니다. IBK캐피탈 채용 필기시험에 빅데이터와 AI가 출제된다는 것은 정보계 역량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채널계(Channel System)는 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접점을 관리하는 계층입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텔레뱅킹, ATM 등이 전통적 채널이며, 최근에는 오픈API, 마이데이터, 비대면 인증 등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IBK캐피탈의 경우 B2B 특성상 개인 고객 대상 모바일뱅킹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비대면팩토링 등 기업 고객 대상 디지털 채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외계(External Interface System)는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금융결제원(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 신용정보회사(NICE, KCB), 금감원(전자공시, 규제보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수많은 외부 기관과 표준화된 전문(電文)을 주고받습니다. 대외계의 안정성은 곧 영업의 연속성과 직결되며, 외부 기관의 시스템 변경에 맞춰 자사 시스템을 적시에 수정해야 하는 대응력이 요구됩니다.

### 5-3. 하루, 한 달, 1년의 업무 사이클

전산직의 일상을 시간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업무는 아침 출근 후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시작합니다. 전날 야간 배치(Batch)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서버 리소스(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을 점검하며, 장애 감시 대시보드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영업부서나 심사부서의 요청사항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출 상품의 파라미터(금리, 한도, 기간)를 시스템에 반영해 달라", "이 화면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해 달라", "이 보고서에 이 항목을 추가해 달라" 같은 요청이 매일 들어옵니다. 개발 업무가 있는 날에는 요구사항 분석, 코딩, 단위 테스트, 코드 리뷰를 수행합니다.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접근 권한 관리, 사용자 계정 관리 등도 일상적 업무에 포함됩니다. 현직자들이 강조하는 점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비IT 현업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며, 문서 작업과 비개발 업무의 비중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순수 코딩 시간은 전체 업무 시간의 30~40% 정도이고, 나머지는 회의, 문서 작성, 이해관계자 소통, 시스템 운영·모니터링 등으로 채워집니다.

월간 업무에는 몇 가지 정기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매월 말에는 결산 배치(Batch)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자 계산, 연체 관리, 총당금 산출, 실적 집계 등 결산 관련 배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오류 발생 시 즉각 대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상치를 확인하여 현업에 보고하는 것도 전산직의 역할입니다. 경영정보 보고서 데이터 추출·가공도 월간 업무입니다. 경영진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각종 실적 보고서, 리스크 보고서의 데이터를 DW에서 추출하고 가공하여 BI 도구에 반영합니다. 정기 시스템 점검과 보안 패치 적용도 매월 진행됩니다. IT 프로젝트 진척관리 회의도 월 단위로 수행되며, 프로젝트 일정·예산·이슈를 공유하고 조율합니다.

연간 업무로는 우선 대규모 IT 프로젝트(차세대, 고도화, 신규 시스템 구축 등)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통상 6개월~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요구사항 수집 → 분석 → 설계 → 개발 → 테스트(통합테스트, 사용자수용테스트) → 운영 이관의 표준적인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연간 보고서 제출(IT 현황, 전자금융사고 현황 등)도 중요한 연간 업무입니다. 정보보호 업무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안 교육, 모의 해킹 테스트, 취약점 진단을 실시합니다. 재해복구(DR) 훈련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실제 재해 상황을 가정하여 백업 시스템으로의 전환(Failover)과 복구(Failback)를 시뮬레이션합니다. ISMS-P 인증 갱신을 위한 심사 대응도 연간 업무에 포함됩니다. 금감원 IT검사 대응은 비정기적이지만, 검사가 나올 경우 수주간의 집중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사관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시스템 구성도, 변경관리 이력, 접근통제 정책, 장애 대응 이력 등)를 제출하고 현장 점검에 동행해야 합니다. IT 예산 편성(차년도 IT 투자·운영 예산 수립)과 노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후 장비 교체 계획 수립도 연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5-4. 이해관계자 맵: 안팎으로 얽힌 관계

전산직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해관계자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중 가장 빈번하게 소통하는 곳은 영업부서입니다. 신상품 출시 시 시스템 반영 요청, 기존 상품 파라미터 변경 요청, 화면 개선 요청, 시스템 장애 신고 등이 영업부서로부터 옵니다. 심사부서(신용평가부서)와는 신용평가모형(CSS-BRS)의 시스템 반영, 자동심사 로직 구현, 심사 워크플로우 설계 등에서 협업합니다. 리스크관리부서와는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시스템, 연체관리 시스템, 대손충당금 산출 모델, 스트레스 테스트 시스템 등에서 접점이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컴플라이언스)와는 금감원 보고시스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내부통제 시스템,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등에서 협업합니다. 경영지원부서(재무회계)와는 회계 시스템, 결산 배치, 세무 시스템 등에서, 기획부서와는 MIS(경영정보시스템), IT 투자 예산 등에서 상호작용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중 가장 중요한 곳은 IBK시스템입니다. IBK기업은행의 IT 전문 자회사인 IBK시스템은 IBK캐피탈의 시스템 구축·운영에 파견 인력을 제공하거나 외부 개발을 수행합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시 IBK시스템의 개발 인력이 상주하며, 이들과의 효과적인 협력이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합니다. 금융감독원은 IT검사를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취약점 진단을 수행합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의 인프라를 운영하며, 이와는 인터페이스 개발·유지보수가 대외계 업무의 핵심입니다. SW/HW 벤더(Oracle, 각종 솔루션 업체)와의 기술 지원 협의, 라이선스 관리도 일상적 업무입니다. 신용정보회사(NICE, KCB)와는 신용정보 조회·등록 시스템의 연계를 관리합니다.

### 5-5. 필수 기술 스택과 자격증

캐피탈사 금융IT에서 요구되는 핵심 기술 스택을 영역별로 정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Java가 주력이며, Spring Framework(Spring Boot 포함)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대부분입니다. C 언어는 레거시 시스템이나 배치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사용됩니다. SQL/PL-SQL은 DB 조작과 배치 로직 작성에 필수이며, 금융IT에서 SQL 역량은 프로그래밍 역량만큼 중요합니다. Python은 정보계 데이터 분석, AI/ML 모델 개발에 활용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레거시 시스템에는 COBOL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Oracle이 금융권의 사실상 표준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비용 절감과 국산화 정책에 따라 Tiberio(국산 DBMS)나 PostgreSQL(오픈소스)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들웨어로는 WebLogic(Oracle)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JEUS(TmaxSoft, 국산)로의 전환도 진행 중입니다.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와 MCI(Multi-Channel Integration) 솔루션도 금융IT 환경에서 필수적입니다. 운영체제는 Unix(AIX)에서 Linux(RHEL, CentOS)로의 전환(U2L)이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비용 절감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보안 기술로는 망분리(물리적/논리적), 데이터 암호화(DB 암호화, 구간 암호화), 접근통제(NAC, IAM), FDS(이상거래탐지), DLP(Data Loss Prevention), DB 접근 감사(DB Audit), 엔드포인트 보안 등이 금융IT의 필수 요소입니다. 클라우드 관련으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OpenStack, VMware)가 우선 도입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에 따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점진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Docker), 오케스트레이션(Kubernetes)에 대한 이해도 점점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IBK캐피탈 전산직 채용에서 필수 자격은 IT 관련 전공 졸업(예정)자 또는 정보처리기사 보유자입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우대 자격증으로는 SQLP(SQL 전문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IT에서 높이 평가받는 자격증으로는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시스템관리사, CISSP(정보보안 전문가), CISA(정보시스템 감사사), ISMS-P 인증심사원 등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블록체인, 빅데이터, AI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기본 개념(블록체인의 구조·합의 알고리즘, 빅데이터 아키텍처·분석 기법, 머신러닝 기초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준비해야 합니다.

### 5-6. 성과 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전산직의 KPI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량적 지표로는 시스템 가동률(연간 99.9% 이상 목표, 즉 연간 다운타임 8.76시간 이내), 장애 건수 및 복구 평균 시간(MTTR), 지원 요청 처리율(건수 대비 해결률과 평균 처리 시간), 보안 사고 건수(제로 목표), 프로젝트 일정 준수율(마일스톤 대비 실제 진행률), IT 예산 집행률(예산 대비 실제 집행 비율)이 있습니다. 정성적 지표로는 내부 사용자 만족도(현업 부서의 IT 서비스 만족도), 규제 준수율(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 사항 건수), 기술 역량 향상도(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술 세미나 발표 등)가 포함됩니다.

금융IT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최고의 성과입니다.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보안 사고가 없고, 결산 배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는 것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순수 IT 기업에서 "혁신적인 기능을 빠르게 출시하는 것"이 최고의 성과인 것과 대비됩니다. 물론 AX·DX 시대에 혁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모든 지표에 우선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 5-7. 대표 업무 시나리오: 가상의 워크플로우

전산직의 업무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업무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은 "신규 대출상품 시스템 반영"입니다. 영업기획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신규 운전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전산팀에 요구사항이 전달되면, 전산직은 먼저 요구사항정의를 작성합니다. 상품명, 금리 체계(고정/변동), 대출 한도, 대출 기간, 상환 방식(원리금균등/만기일시), 담보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등 모든 파라미터를 현업과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이어서 시스템 설계(화면 설계, DB 테이블 설계, 배치 로직 설계)를 수행하고, 개발(코딩),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거칩니다. 현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사용자수용테스트(UAT)에서 상품이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 후, 변경관리 절차를 거쳐 운영 환경에 반영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문서 작성(요구사항정의서, 설계서, 테스트결과서, 변경신청서)이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나리오 2는 "금감원 IT검사 대응"입니다. 금감원으로부터 IT 현장검사 실시 통보가 옵니다. 전산팀은 검사 준비 TF를 구성하고, 검사관이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시스템 구성도(서버·네트워크·DB 현황), IT 조직도 및 인력 현황, 변경관리 이력(최근 1년간), 접근통제 정책 및 권한 부여 현황, 장애 발생 및 조치 이력, 재해복구 훈련 결과, 정보보호 업무계획 및 이행 현황, 외주 인력 관리 현황 등이 핵심 준비 자료입니다. 검사 기간 중에는 검사관의 질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추가 자료 요청에 즉각 대응합니다. 검사 종료 후에는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시나리오 3은 "야간 배치 장애 대응"입니다. 월말 결산 배치가 야간에 실행되는 중 특정 이자계산 배치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알림을 받은 당직 전산직원은 즉시 로그를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합니다. 특정 대출 건에서 금리 변경 이력이 누락되어 이자 계산 로직에서 예외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데이터를 보정하고 배치를 재실행하여 정상 완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장애 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증 로직 추가를 계획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금융IT의 일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야간·주말 근무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결산 시거나 대규모 시스템 변경 시에는 발생할 수 있으며, 장애 상황에서의 침착한 분석력과 신속한 대응력이 요구됩니다.

### 5-8. 금융IT를 뒤흔드는 기술 변화와 전산직의 미래

2025~2026년 금융IT를 관통하는 기술 변화는 전산직의 업무 환경과 요구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전환(AX)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IBK캐피탈도 2026년 전략에 AX를 명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여신심사 과정에서의 AI 활용(비정형 데이터 분석, 재무제표 자동 분석, 부도 예측 모델), 리스크 관리에서의 AI 활용(조기경보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생성), 업무 자동화에서의 AI 활용(챗봇, RPA, 문서 자동 분류)이 예상됩니다. 전산직은 이러한 AI 모델의 시스템 통합,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모델 서빙(Serving) 인프라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필기시험에 AI가 출제된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이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이데이터 2.0의 시행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마이데이터 2.0이 시행되면서 정기전송, 잔고이전, 소비보고서 등 서비스가 고도화됐습니다. 캐피탈사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의 동의 하에 타 금융기관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산직은 마이데이터 API 연계,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개인정보 처리 규정 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망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IT의 기술적 자유도를 크게 높이는 변화입니다.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 환경에서는 개발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단말기를 써야 했고, 외부 라이브러리나 오픈소스 활용이 극도로 제한됐습니다. 규제 완화로 이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생성형 AI 도구(코딩 보조, 문서 작성 등), SaaS 기반 협업 도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원칙 중심 규제"로의 전환이므로, 보안 원칙을 스스로 판단하고 적용해야 하는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됩니다.

클라우드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하이브리드·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산직은 온프레미스 환경의 운영과 함께 클라우드 아키텍처(IaaS, PaaS, SaaS)에 대한 이해, 컨테이너화(Docker, Kubernetes), CI/CD(지속적 통합/배포) 파이프라인 구축 등 새로운 기술 역량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5-9.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전산직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IT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수 IT 기업의 개발 문화와 금융IT의 운영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성이 혁신보다 중요한 이유", "변경관리 절차가 왜 엄격한지", "문서화가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로 금융IT에 대한 도메인 역량입니다.

기술적 역량에서는 Java/Spring, SQL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며, 이에 더해 데이터베이스 설계·튜닝 역량(SQLP 우대가 이를 반영)과 빅데이터·AI 기초 지식이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비전공 팀원과 소통하여 요구사항을 정리한 경험", "체계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한 경험",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한 경험" 등 소프트스킬을 구체적 에피소드로 제시하는 것이 면접 합격의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IBK캐피탈이 B2B 특화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업금융·투자금융의 기본 개념(팩토링이란 무엇인지, 메자닌투자란 무엇인지, PEF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갖추고 있다면,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온 지원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전산직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만드는 시스템이 어떤 비즈니스를 지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IT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역량 중 하나입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삼일PwC — 캐피탈사 현황 점검과 대응방안 — <https://www.pwc.com/kr/ko/insights/industry-focus/capital-company.html>
2. 한국금융신문 — IBK캐피탈 2025 실적 (문창환 대표)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20516371881178a55064dd1\\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20516371881178a55064dd1_18)
3. 한국금융신문 — IBK캐피탈 2025 경영전략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1181353323639dd55077bc2\\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1181353323639dd55077bc2_18)
4. 한국금융신문 — 조성태 부사장 인터뷰 (생산적금융)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2072129086511dd55077bc2\\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2072129086511dd55077bc2_18)
5. 한국금융신문 — 2025 1분기 캐피탈사 리그테이블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52718154712806a663fbf34\\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52718154712806a663fbf34_18)
6. 한국금융신문 — 캐피탈 업계 2024 결산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290658459559dd55077bc2\\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290658459559dd55077bc2_18)
7. 한국금융신문 — IBK캐피탈 2024 실적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2121438234856a663fbf34\\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2121438234856a663fbf34_18)
8. 더벨 — 캐피탈사 재무 구조 점검 (강화된 규제)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618080006380019077>
9. 더벨 — IBK캐피탈 자기자본 3조 목표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6300833186160101958>
10. 더벨 — 문창환 대표 조직 개편 — <https://www.thebell.co.kr/front/newsview.asp?key=202509181512095800104178>
11. 더벨 — 산은캐피탈 총자산 10조 시대 — <https://www.thebell.co.kr/front/newsview.asp?key=202506041459126640101387>
12. KPMG — 2025 국내 디지털금융 주요 이슈 — <https://kpmg.com/kr/ko/insights/eri/2025/businessfocus-0314.html>
13. 한국신용평가 — 우리금융캐피탈 신용평가 보고서 — <https://kisrating.com/fileDown.do?menuCd=R8&gubun=2&fileName=rs20250625-14.pdf>
14. 갯뉴스 — 2024년 카드사 순이익 2.6조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218>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전산분야

15. 뉴데일리 — 4대 금융 캐피탈사 수익  
성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2/2024050200175.html>
16. 파이낸셜뉴스 — 캐피탈사 통신판매·렌탈 규제 완  
화 — <https://www.fnnews.com/news/202511201449333955>
17. IB토마토 — IBK캐피탈 가계금융 정  
리 — <https://www.ibtomato.com/Mobile/mView.aspx?no=14922>
18. IB토마토 — IBK캐피탈 부동산PF 대  
비 — <https://www.ibtomato.com/mobile/mView.aspx?no=9775>
19. 뉴스토마토 — IBK캐피탈 보수적 리스크 관  
리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6145>
20. 한국경제 — IBK캐피탈 신임 대표 문창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1796841>
21. 금융위원회 — 여전법 관련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75432>
22. IBK캐피탈 공식 홈페이지 — 회사개요 — <https://www.ibkc.co.kr/ib20/mnu/MNUPCKCOMP001>
23. IBK캐피탈 공식 홈페이지 — 인재상 — <https://www.ibkc.co.kr/ib20/mnu/MNUPCKCOMP021>
24. IBK캐피탈 공식 홈페이지 — 인사/복리후  
생 — <https://www.ibkc.co.kr/ib20/mnu/MNUPCKCOMP022>
25. 자소설닷컴 — IBK캐피탈 2026 채용공고 — <https://jasoseol.com/recruit/103354>
26. 링커리어 — IBK캐피탈 2026 신입사원 모집 — <https://linkareer.com/activity/314259>
27. 인크루트 — IBK캐피탈 채용 기업정보 — <https://www.incruit.com/company/5067334/>
28. 맨텍솔루션 — 2025 금융·증권 IT 트렌  
드 — [https://www.mantech.co.kr/blog/2025\\_finance\\_it\\_trend/](https://www.mantech.co.kr/blog/2025_finance_it_trend/)
29. 글로벌이코노믹 — 마이데이터 2.0 시행 — [https://www.g-eneews.com/article/Finance/2025/06/202506171400543404bb91c46fcd\\_1](https://www.g-eneews.com/article/Finance/2025/06/202506171400543404bb91c46fcd_1)
30. 정책브리핑 —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발  
표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2831>